

# 또 아파트숲?...광주 전방·일신방직 부지 부동산업체에 매각

2곳 6850억 계약 체결  
광주시 계획 변화 불가피  
“소유권 완전 이전 전까지  
전방·일신방직과 협의”



광주시 북구 임동에 있는 전방(옛 전남방직), 일신방직 광주 공장 부지가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됐다. 임동 방직 공장은 1935년 일본 방직업체가 설립한 공장이 모태로, 광주시민에게 일제 수탈의 아픔과 산업화 시기 애환이 서린 근대 산업문화 유산으로 남아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한때 광주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전방(옛 전남방직), 일신방직의 광주 공장 부지가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됐다. 광주시는 해당 부지에 시민편의와 공익성을 담보한 문화시설 조성 등을 준비 중이었으나, 이번 부지 매각으로 아파트 건립 등이 거론되면서 “또 아파트 숲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광주시와 지역 업체에 따르면 전방은 자산운용 효율화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광주 북구 임동 광주 공장 부지를 3660억1400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지난 23일 체결했다. 인접한 일신방직도 3189억8600여만원 규모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부지 규모는 전방은 16만1983㎡, 일신방직은 14만2148㎡이다. 3.3㎡당 740만 원선에서 매각가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계약에는 매각 대금, 부지 규모, 장소의 상징성에 대규모 택지 개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지역 사회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2곳 모두 부동산 개발 업체인 엠비엔 프라퍼티와 휴먼스홀딩스에 양도한다. 양도 예정일은 내년 6월 30일이다. 거래 대금은 계약금으로 10%를 지급하고 잔금은 사전협상 종료일에 주기로 했다.

매각이 이뤄지면 광주시의 기존 개발 계획 구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방직산업 메카인 공장 터를 개발하고 시민 편의와 공익성을 담보한 계

획안을 마련해 전방, 일신방직과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개발 계획을 구상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전방과 일신방직은 평동산단에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 능력을 설비 현대화 등으로 늘려 임동 공장을 이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방 임동 공장은 2017년 말 가동을 중단했으며, 일신방직은 가동 중이다.

두 업체는 임동 공장 부지 용도를 공업 용지에서 상업이나 주거 용지로 변경해 호텔, 업무 시설, 쇼핑 시설, 주상복합 시설,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제안서를 지난해 8월 광주시시에 제출한 바 있다.

시는 이와 별개로 도시계획, 경관, 교통, 문화, 환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계획을 마련한 뒤 업체와 분협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시는 조건 없는 토지 용도변경은 특례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땅값 상승액의 절반 정도를 공공 기여금으로 받는 방침도 정했다.

이번 부지 매각 계약으로 개발 계획에 변수가 생겼지만, 광주시는 협상 상대방을 토지 소유자라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기 전까지는 전방, 일

신방직과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단 매각 경위를 파악하고, 시의 협상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임동 방직 공장은 1935년 일본 방직업체가 설립한 공장이 모태로 시민에게는 일제 수탈의 아픔과 산업화 시기 여공의 애환이 서린 근대 산업문화 유산으로 남아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물러가고 정부 소유 전남방직 공사로 출범했다가 1951년 전남방직 주식회사로 민영화됐으며 1961년에는 일신방직이 분할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2021년 전남 ‘가고 싶은 섬’은?

도, 대상지 2곳 공모

전남도가 2021년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에 대한 공모에 착수했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8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로 9월말까지 서류·현장·정책평가를 실시해 10월 2개 섬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섬 가꾸기 전문가 8명 이내로 평가단을 구성해, 섬의 독특한 생태·자연·문화·역사 등을 중심으로 섬 마을 활성화와 잠재력, 사업 추진가능성, 주민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10억 원씩 5년간 총 50억 원이 지원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개발방향과 주제 등을 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섬을 가꿀 수 있게 된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은 첫해인 2015년 여수 남도를 비롯 고흥 연흥도, 강진 가우도, 완도 소안도, 진도 관매도, 신안 반

월·박지도 등 6개 섬 선정을 시작으로 매년 2개 섬이 추가돼 현재 총 16개 섬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9개 섬은 관광기초시설에 대한 조성을 마쳐 개발됐으며, 오는 2024년까지 24개 섬을 선정해 집중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개방한 9개 섬은 마을식당과 게스트하우스, 카페, 특산물판매장 등을 통해 최근 4년간 28억원의 마을 공동 소득을 창출했으며, 65가구 85명이 귀해 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박용학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이후 관광객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운영으로 새로운 주민 소득 창출을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이 주도한 지속가능한 ‘가고 싶은 섬’을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신임 정무수석보좌관에 이남재씨

광주시는 신임 정무수석보좌관에 이남재(53·사진)씨를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남재 정무수석보좌관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출신으로,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참여자치21 운영위원,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위원, 전남도 정책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지역 방송에서는 시사평론 방송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였고,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로 나섰다. 광선에서 양향자 국회의원에겐 석패했다.

광주시는 이 보좌관에 대해 “다양한 정

무 활동 경험을 통한 전문성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을 겸비하고 있어 광주시정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시정 보좌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무수석보좌관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기교 구실과 시의회·시민사회·언론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임기는 1년이며 업무능력과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의회, 체육계 폭행 재발방지 대책 논의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김나운)는 지난 24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운동선수 폭행 관련 사항 보고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 소속팀 감독 등으로부터 가혹 행위로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최희현 선수 사건에 이어 광주시 체육계 우수선수 폭행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시의회의 요구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시 체육회는 우수 선수 폭행 사건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체육 현장에서 수시 면담 및 훈련 여건 점검, 합숙소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광주시 교육청은 27~28일 이들 간 학

생선수 2100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지도자 인권교육 강화와 학생선수 인권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교육문화위원들은 “선수들이 피해 호소를 하는 기관인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전수조사도 의명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방법으로 해달라”고 권고했다.

김나운 위원장은 “피해 선수들이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계획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나주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윤곽 나올까

광주시·전남도·나주시·산업연구원, 연구 용역 착수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산업연구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및 발전기금 설립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광주시·전남도·나주시간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들은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및 재단 설립을 위해 공동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협약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출범 당시인 2006년 2월 세 지자체는 발전기금 조성 및 재단 설립에 합의했지만, 출연금 조성 방안 등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광주시는 이전 공공기관이 남부한 지방세를 전남도와 나주시가 발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여건 개선에 투입한 비용을 고려하면 지방세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세 지자체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발전기금 설치·활용 방안, 재단 설립의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용역을 통해 발전기금 조성 시기와 규모, 용도, 운용기구 설치, 재단 설립 방안 등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곤충사육장 + 태양광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